

영광군, '축산 약취' 국민권익위 활용 실마리 찾았다

한센인촌 마을 5개 돈사 폐업 합의
돈사 폐업까지 약취 관리지속 협력
국민권익위 '조정' 해결방안 마련
농촌공간정비 등 환경개선 추진

영광군이 영민농원 축산약취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했다. 영민농원 일대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쾌적한 농촌공간 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된 영민농원 한센인촌 정착민들의 축산약취에 관한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영민농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마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군 축산식품과장으로부터 영민농원의 현황과 축산약취 해결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조정 회의는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영민농원 대표, 축산 농가 5명 등 총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영민농원 약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서에 서명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합의했다.

주요 조정서 내용은 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 내 5개의 돈사를 폐업하고 이 지역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동시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축산농가에게 일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축산농가는 돈사 폐업 시까지 축산약취 관리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영민농원의 축산약취 문제는 그동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고착화된 상태였다.

이에 약 6개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영광군 6개의 관련 부서는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영광군을 방문해 영민농원 일대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환경개선을 논의했다. 영광군 제공

으로 이번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장은 "이번 조정으로 수년 간 지속되어 왔던 한센인 정착촌 내 양돈사업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편견과 차별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

영광군수 권한대행 김정섭 부군수는 "이번 조정 회의가 지난 수년 간 지속된 영민농원 축산약취 갈등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군은 조정 내용에 따라 영민농원 일대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 도곡 미니파프리카 3.5톤 중국 수출 선적

화순군은 지난 3일 도곡농협 제1 APC에서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대표 문형운)의 미니파프리카 중국 수출 선적식을 거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선적식에는 구북구 화순군수, 문형운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대표, 박광재 도곡농협조합장, 수출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은 우리나라 미니파프리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자단체로 일본, 중국, 홍콩 등을 상대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0.5톤 규모에 머물렀던 미니파프리카 수출량이 올해는 7톤 이상으로 본격 확대됨에 따라 신시장 개척 및 판로 다변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별도의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적식에서는 미니파프리카 3.5톤(1만6000달러)이 수출길에 올랐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이번 수출을 통해 화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해외에 알리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향한 지속적인 판로 확대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화순군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평생학습 정기강좌 수강생 모집 곡성 미래교육재단, 12일까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오는 12일까지 하반기 평생학습 정기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8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주간 운영되며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총 27개 강좌, 48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강좌는 기술·기능, 음악·무용, 미술·공예, 생활체육,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주요 강좌로는 컴퓨터, 재봉, 라인댄스, 통기타, 노래교실, 서예, 에어로빅, 외국어 회화 등이 있다.

수강 신청은 1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선착순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로 이뤄진다. 방문 접수는 곡성군문화센터 2층 곡성군평생학습센터에서, 온라인 접수는 곡성교육포털(<https://www.gokseong.go.kr/edu/>)을 통해 가능하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 C형간염 무료 검진 20세 이상 선착순 600명

담양군은 7월부터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C형간염 퇴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C형간염 퇴치 사업은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보건소,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광주·전남 암센터가 참여해 C형간염 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C형간염 무료 검진은 8월까지 보건소에서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선착순 600명) 확진자 중도내 1년 이상 거주와 중위소득 130% 이하인 환자에게는 진료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담양=신재현 기자

나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처 사항 점검

풍수해·폭염 등 적극 대응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운병태 시장 주재로 나주경찰서와 나주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을 대비해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1개 협업부서와 7개 관계 기관과 함께 기관별 대처 사항을 공유 점검했다.

회의에는 나주경찰서, 나주소방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KT나주시사, 나주교육지원청, 육군제8332부대 제3대대 등이 재난 대비 관계 기관으로 참석했다.

나주시는 울들어 현재까지 풍수해로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99개소, 급경사지 60개소, 임도 126km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시설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배수펌프장 57개소(시 26개소, 농어촌공사 31개소), 배수문 97개소, 저수지 218개소(시 58개소, 농어촌공사 160개소), 도로 측구와 우수 받이, 맨홀 주변

이물질 제거와 관리시설 점검을 5월 중순까지 완료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6월 초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 17개소를 지정하고 4인 담당제(공무원2·경찰1·민간1)를 통해 차량 통행 및 시민 보행 불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서고 있다.

풍수해와 더불어 폭염 날씨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여름철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해 그늘막(파라솔) 222개소, 무더위 쉼터 618개소, 시내 주요 도로에 살수차 5대를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과 버스 승강장 냉·온열 벤치 설치,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쿨도시, 부채 등 예방물품 제공을 통해 시민의 시원한 여름나기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의 건강관리를 최우선해 대비해야 한다"며 "국지성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적극 대응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곡성군 관계자가 관내 한 식당을 찾아 식중독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곡성군은 오는 12일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시행한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여름철 대비 식중독 예방 지도

곡성군이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영업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도·홍보를 실시한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2주간의 집중 활동은 김밥, 냉면 전문점, 산업체 주변 배달음식점 등 달걀 취급이 많은 음식점 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소통전담관리원을 지정하고, 안내표, 포스터,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식재료 취급요령, 개인위생수칙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에서 중점을 두는 식중독 예

방 6대 수칙은 △손 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익혀먹기(육류 75℃, 어패류 85℃에서 1분 이상) 끓여먹기(물은 끓여서 마시기) 세척·소독하기(식재료·조리기구 철저히) △구분 사용하기(남은음식과 조리음식, 칼·도마 구분)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 5℃ 이하, 냉동 -18℃)이다.

보건의료원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에 점검 관리 카드를 비치하여 영업주와 종사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노후화 전기 시설 무료 교체

화순군은 노후화된 전기 시설 때문에 발생하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계층 주거시설 5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누전차단기·콘센트·전선 등 전기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이 중 노후화되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 시설을 무료로 교체, 보수하고 있다.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순군 민간 전기 점검업체가 민·관 합동으로 직접 사

업 대상자 주거시설을 사전 방문해 전기 안전 점검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주거시설의 경우 별도의 '전기 보수반'이 방문하여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전기 안전 점검·보수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안전취약계층 328가구에 대해 점검·보수를 지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평소 화재 위험에 노출된 노후주택의 화재 예방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며 "군민 여러분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안쓰는 전열기구 스위치 끄기 등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